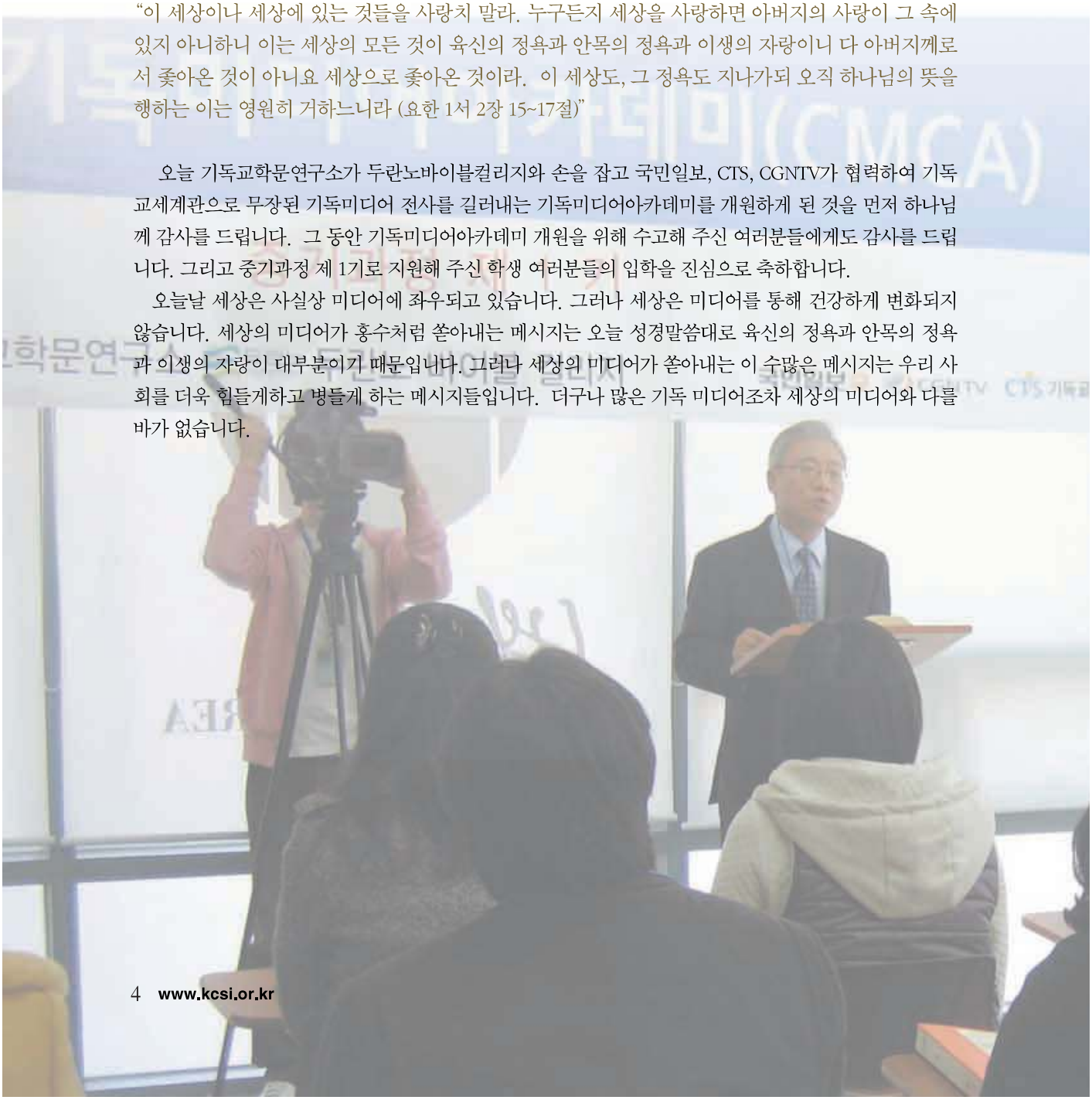
세상의 메시지

조정민(기독미디어 아카데미 원장, CGN-TV대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좇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 1서 2장 15~17절)"

오늘 기독교학문연구소가 두란노바이블컬리지와 손을 잡고 국민일보, CTS, CGNTV가 협력하여 기독교세계관으로 무장된 기독미디어 전사를 길러내는 기독미디어아카데미를 개원하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기독미디어아카데미 개원을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기과정 제 1기로 지원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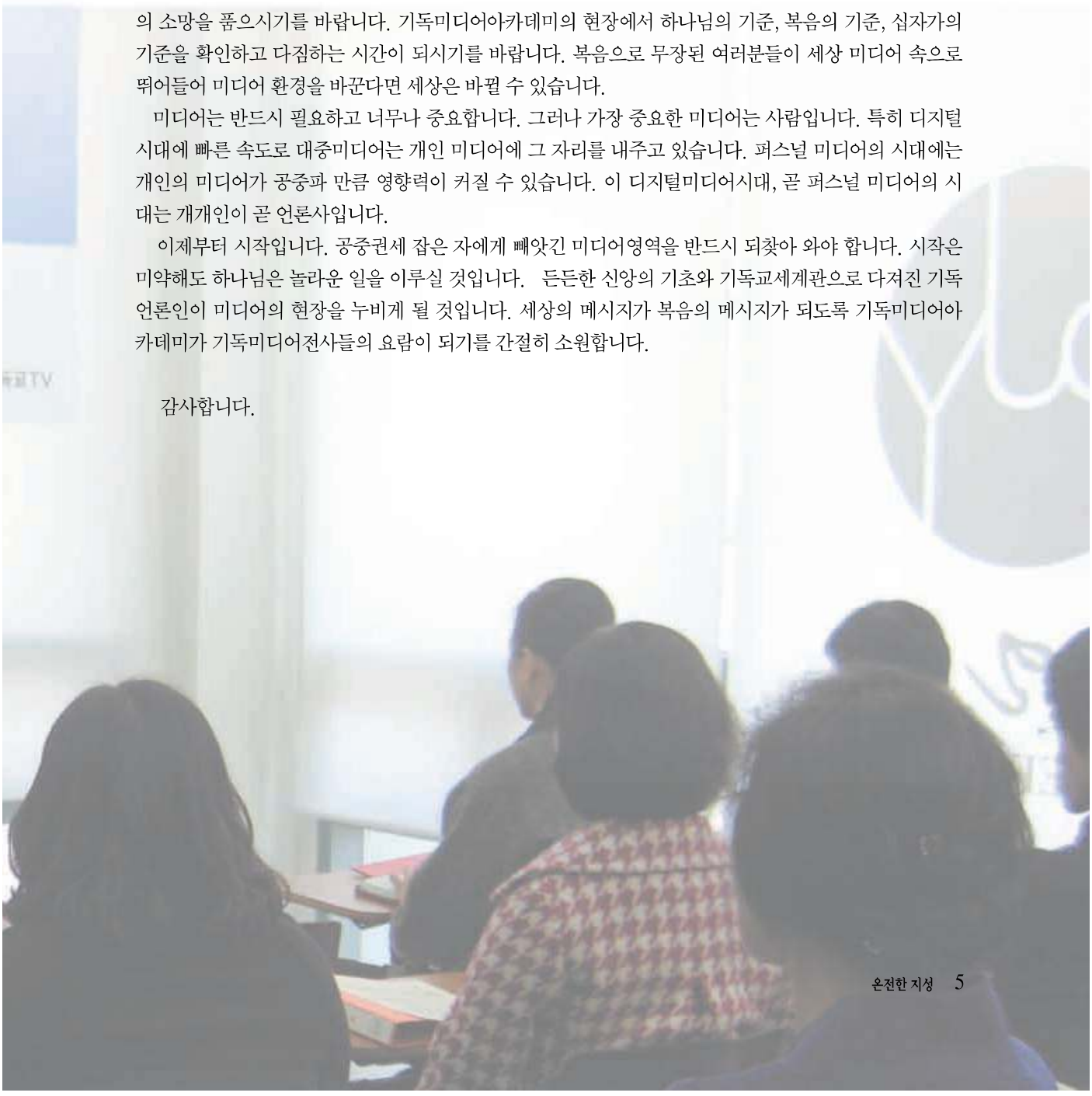
오늘날 세상은 사실상 미디어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미디어를 통해 건강하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미디어가 홍수처럼 쏟아내는 메시지는 오늘 성경말씀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미디어가 쏟아내는 이 수많은 메시지는 우리 사회를 더욱 힘들게하고 병들게 하는 메시지들입니다. 더구나 많은 기독 미디어조차 세상의 미디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번 아카데미의 설립은 혼탁한 미디어 환경 속에서, 그리고 기독미디어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또한 생명을 시들게 하고 낙심케 하는 미디어 홍수 속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믿는 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기독미디어의 사명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기독미디어의 숫자는 아무리 많더라도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디어에 뜻을 두는 사람들이 기독교세계관으로 무장되지 않는다면 기독언론인의 소명을 감당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을 살펴보면 미디어의 구원이 세상 구원의 핵심입니다. 기독미디어 전사들은 이러한 믿음과 비전의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미디어아카데미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준, 복음의 기준, 십자가의 기준을 확인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무장된 여러분들이 세상 미디어 속으로 뛰어들어 미디어 환경을 바꾼다면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미디어는 반드시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미디어는 사람입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빠른 속도로 대중미디어는 개인 미디어에 그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퍼스널 미디어의 시대에는 개인의 미디어가 공중파 만큼 영향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미디어시대, 곧 퍼스널 미디어의 시대는 개개인이 곧 언론사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빼앗긴 미디어영역을 반드시 되찾아 와야 합니다. 시작은 미약해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든든한 신앙의 기초와 기독교세계관으로 다져진 기독언론인이 미디어의 현장을 누비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가 되도록 기독미디어아카데미가 기독미디어전사들의 요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